

# 땀 올린 통합민주당 '총선 앞으로'

## 17일 공식 출범 "오만·독선 이명박 정부 견제하겠다"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로...내일부터 공천신청 접수

통합민주당이 공식 출범했다. 17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통합수입기구 합동회의를 열어 당 대 대표 통합과 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 창당을 공식 의결했다.

양당은 이날 신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 등 양당 최고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신설합당 방식에 의한 통합을 결의했다.

또, 새 정당의 당명을 통합민주당으로 하며 손학규·박상천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손 대표만 등록한다는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당은 합당선언문을 통해 "통합민주당은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

는 유능한 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선 승리에 도취돼 출범도 하기 전에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에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견제와 균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신당 측의 김효석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으며 사무총장에는 신계륜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최고위원으로는 신당 측에서 강금실, 김상희, 박명광, 박홍수, 유인배, 정근환, 홍재형 최고위원이, 민주당 측에서는 김충조, 최인기, 신낙균, 김민석, 고재득 최고위원 등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당연직 최고위원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정원 15명 가운데 신당 측이 9명, 민주당 측이 6명 포함됐다.

통합민주당은 18일 중앙선거위에 합당신고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9일부터 공천 신청을 접수하기로 하는 등 총선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공천심사위원 진용은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당 측에서는 수도권 386 의원들의 기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최소한 호남에 출마하지 않는 중립적 인사로 공심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공심위원으로 확정됐다는 설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하는 공심위원은 충분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50년 정통 민주세력이 다시 하나로 결집해 새롭게 출발하는 뜻 깊고 좋은 날"이라며 "유능한 미래 세력에 문호를 개방해 당의 토양을 건전하게 바꾸는 쇄신공천으로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심상정·노회찬 '내달 탈당' 민노당 분당 가속화

진보진영이 4·9 총선 이전에 자주파(NL) 중심의 민주노동당과 광등파(PD) 중심의 진보신당으로 양분될 전망이다.

조승수 전 의원, 김혜경 전 대표 등 탈당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진보신당 운동'이 내달 초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인 가운데 심상정, 노회찬 의원도 내달 중 탈당해 진보신당 대열에 합류한다.

반면 민노당은 1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천영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재창당 프로그램을 통해 총선에 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노당 분당이 가속화되면서 진보진영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 양분돼 총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여성 정치인 공천 보장하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등으로 구성된 '광주여성정치인모임'은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여성 정치인의 공천 보장을 촉구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 급증

### 17일 현재 171명 등록, 17대 총선비 51% 늘어 통합민주 107명 최다...한나라당도 24명 출사표

광주·전남 지역에서 4·9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지난 17대 총선에 비해 17일 현재 51%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여권 진영의 수도권 전멸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해 참여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을 비롯, 통합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 확정·정당 공천 여부 등을 지켜보다 후보 등록을 할 입지자 때까지 감안하면 오는 3월 후보 등록 전까지 총선 티켓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쏟아질 전망이다.

17일 광주·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광주·전남 지역 예비후보 수는 모두 171명(광주 74명·전남 97명)으로, 17대 총선 당시 113명에 비해 51% 늘어났다.

정당별로는 호남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통합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107명으로, 지난 17대 총선 당시 66명(새천년민주당 35명·열린우리당 31명)에 비해 62% 가량 늘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들도 폭증했다. 대선 승리로 여당으로 바뀌면서 지난 17대 총선에서 5명에 불과했던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이날 현재 24명(광주 5명·전남 1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23명에 달했던 무소속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 서 13명으로 줄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조영택, 노인복지관 찾아 무료 급식봉사

### 4·9 총선 현장



○조영택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주말과 휴일엔 성당·교회·아파트 단지·상가·양동시장 등을 돌며 지역민들을 상대로 한 표발같이 총력.

조 후보는 또 서구 노인 복지회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지지를 호소.

### 김영룡, 화순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김영룡 전 국방부차관이 15일 화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행보를 본격화. 김 후보는 "지난 35년간 당·정·청에서 일하며 특덕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지역민의 요구와 염원을 중앙 정부에 충실히 전하고 또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 정재훈, 성당 순회 지역 민심 탐방



○정재훈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6, 17일 이틀간 월산·진월·주월 성당을 순회하면서 신도들과 만나는 탐방의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 정 후보는 "정치인은 정파와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봉사 정치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

### 지병문 "이명박 정부 호남 흉대 견제"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최근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내각 인선과 관련, "호남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던 이명박 당선인의 말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

지 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용섭 "광산을 광주 발전 원동력으로"



○이용섭 광주 광산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면서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

이 후보는 이날 "관세청장·국세청장·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등을 지낸 경험과 전문성으로 광산을 광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출마의 변을 피력.

### 최형식 "개혁공천 위한 토론회 갖자"



○최형식 담양·곡성·장성 예비후보가 통합민주당으로 출마한 지역 예비후보들에게 "공천권을 당원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를 제안.

최 후보는 "전라공천처럼 중앙에서 후보를 내려보내는 나눠먹기식 구태정치로는 통합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며 "개혁 공천만이 살길"이라고 주장.

### 이만영, 광주 북갑 선거사무소 개소



○이만영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출마를 공식화. 이 후보는 이날 "낙후한 광주 북구를 교육과 문화가 어울리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겠다"면서 지지를 당부.

### 민형배, 광주 광산 선거사무소 개소



○민형배 광주 광산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광산구민의 비서관이 되겠다"며 출마 의지를 표명. 민 후보는 이날 "국회에 입성, 청와대 비서관을 거친 국정 경험으로 광산지역의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IMPERIAL**

50% 세일

입매리얼 1주년  
50% 추가 30~20% 추가할인

**Olivia Lauren**

50% 세일

TEL: 383-1107